

# 동네 도서관에서 시원한 여름을

박원순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변호사

1993년쯤일까. 미국에서 유학하던 당시, 보스턴 지역신문에 났던 이야기다. 우리나라로 치면 노숙자(홈리스)였던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동네도서관을 들락날락 하다보니 냄새도 나고 허름한 차림 때문에 다른 도서관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려 쫓겨나게 됐다. 그러자 그 지역의 노숙자들과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논쟁과 시비가 벌어졌고 결국 그 사람은 큰 보상을 받아 팔자를 고쳤다는 뉴스였다. 그 노숙자로서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방열이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주는 동네 도서관만큼 좋은 숙소가 있을 수 없었던 것인데, 차별대우 때문에 거액의 보상금까지 챙겼으니 '대박'이 터진 셈이다.

이 무더위에는 특수한 피서법들이 개발된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바캉스를 떠나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집에서 '방콕' (방에 콕 처박혀 있는 일)할 수밖에 없다. 요령있는 사람은 동네 인근의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서 책을 읽거나 쉬는 방법을 터득한다. 이럴 때 동네 도서관이라도 있으면 바캉스 못가는 주민들이 독서삼매경에 빠지면서 더위도 피하는 '펍먹고 알먹기' 피서법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에게도 동네 도서관이 없다. 지역에 있는 한두 개 공공도서관에는 임시공

부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자리잡으려고 새벽부터 진을 친다. 그 자리를 잡지 못한 학생들은 독서실로 몰려간다. 말이 독서실이지 임시공부하는 학생들로 붐비는 곳이다. 심지어 책을 실은 차량으로 영업하는 이동도서관이 성업이다. 아파트 안까지 찾아와 책대본소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공공도서관체제는 부럽기만 하다. 동네마다 공공도서관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자기 집에 책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미국 유학시에 책방에 들러 여러 권을 사는 나에게 책방 주인은 "책장사 하느냐"고 물어왔다.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디스카운트가 없다는 그 나라에서 할인을 받기도 했지만 '미국사람들은 그렇게 개인이 비싼 돈을 주고 책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그러나 이런 공공도서관 체제가 생겨난 데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 의회도서관은 아담스빌딩, 제퍼슨빌딩 등으로 나눠져 있다. 식민지 초기 시대에 대통령이었던 이들이 의회도서관 설립에 큰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담스 대통령은 사서를 직접 임명하기도 했다. 이들의 관심과 후원에 따라 지금의 미국의회도서관은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철강왕 카네기의 공헌이다. 카네기는 미국 전역 1,412개 지역에 1,679개의 공공도서관 건물 마련을 위해 큰 돈을 내놨다. 평소 종업원에게 월급까지 인색했다는 그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자선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 무더위의 계절에 공공도서관에 무관심한 우리의 대통령. 자신의 자식에게 재산을 온통 물려주기 위해 안달하는 우리의 재벌과 카네기를 견주는 일은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네 도서관에서 시원한 여름을'. 이 말이 차기 대통령의 공약이 됐으면 좋겠다.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